

특별기획

군산 새만금 해맞이 행사 AI 확산 우려 전면 취소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열리는 2017 군산 새만금 해맞이 행사가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로 전면 취소됐다.

지난 22일 군산시는 AI가 사상 최고 속도로 확산되면서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AI의 확산을 막고자 해맞이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AI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축산 농가 방문 및 대규모 운집행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박기현 군산세무서장 취임

지난 22일 제49대 박기현(54)(사진) 군산세무서장이 취임했다.



박기현 세무서장은 전남 고흥 출생으로 광주인성고,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했다.

1984년 반포세무서에서 공직을 시작한 박기현은 2015년 6월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주로 국제청 조사국, 국제청 학자금 상환과, 서울청 조사국 및 중부청 조사국 등 국제청의 중요부서에서 근무했다.

박기현 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가 성실 납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을 강조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3.1운동체험교육관 건립

군산시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구암동산에 '군산3.1운동체험교육관'을 건립한다.

군산3.1운동체험교육관은 한강이남 최초의 3.1 만세운동지이자 28번의 만세운동으로 3만7000여명이 참여한 거사를 일으킨 군산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에게 독립운동 및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된다.

3.1운동체험교육관은 총 사업비 39억 70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969.2㎡의 지상 3층 건물로, 1·2층은 전시실과 영상실로, 3층은 체험교육관과 기념추모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하여 3.1운동체험교육관 건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내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지역현안 산재 속 군산시의회, 중국 방문 강행

외유성 출국 추진 비난 자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지역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중국 방문을 강행해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군산시의회는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기초의원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종합청렴도 결과를 받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불확실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유성 출국을 추진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본보 12월 23일자 1면)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박정희 의장 등 상임위원장단 6명과 직원 등 일행 12명이 28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인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연대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9일 중국 청도시 외사공관실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모든 경비는 군산시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항공료 등을 포함해 개인당 110만원으로 의원 6명(의원국외여비) 660만원, 직원 5명(직원 국외여비) 550만원, 통역 1명

(민간인 국외여비) 110만원 등 모두 1320만원이다.

방문일정을 보면 28일 중국 청도시 인민대표대회와 간담회와 환영 만찬에 참여한다.

27일은 청도 통상사무소 방문과 박물관 등 문화탐방, 청도 길거리 문화 체험(떡거리골목) 일정이 진행되며, 28일에는 연대시로 이동해 관광조사자들과 간담회와 인민대표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29일에는 연대시 일원의 문화탐방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으로, 간담회를 제외하면 전체 일정 대부분이 문화탐방이나 체험 등으로 꽤 있어 외유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 6명에 6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시의회 해외 방문 때마다 지적되고 있다.

직원들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에 해외시찰 등 단순 목적의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담당 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해 인원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행인원이 지나친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참여하지 군산시민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군산시의회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를 명목으로 중국 청도시와 연대시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번 중국방문은 청도시의 초청이라고는 하지만 사유가 불분명한데다 탄핵과 AI 등 비상사국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문 일정에도 청도시가 군산시의회를 초청할 만한 사유의 행사와 프로그램이 없고 연대시의 경우는 오찬 일정도 아직 미정인 상태"라며 "사유가 될 만한 행사도 없고 잘 준비되는 행사도 아닌데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꼭 가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도 이번 중국방문을 굿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A의원은 "요즘 같은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을 연탄 한 장만 받아도 부자가 된 기분"이라며 "허겁지겁 혼란스런 정국에서 당장 군산 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인데 꼭 초청에 응해야 했는지 의문이며, 정중히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CCM)

하림 3회 연속 획득 '영예'

(2016-12-23)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웨리톤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2016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수여식'에는 (주)하림 이문용 대표 이사가 참석해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재인증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시작돼 현재 170여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하림은 2012년부터 소비자 접점부터인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며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속한 고객 대응을 위한 영업부서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내부직원의 성장발전을 위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소비자중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주)하림 이문용 대표이사는 "자사의 임직원들은 우리 가족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개별 소비자 제보사건을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신뢰 하에 기업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다. 또한 인증마크의 사용권한 및 우수기업 포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익산=정양원기자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군산조선소 준치 범도민 100만 서명부 전달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3일 문동신 군산시장, 김관영 국회의원,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군산시의회의장, 협력업체 대표 등과 함께 군산조선소 준치를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운동 서명부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아산정책연구원에 전달했다.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기 위한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기 위한 범도민 차원에서 전개한 30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원에서 선박전조 물량배정과 조선업 지원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산업부 장관과 정부 각 주요 인사 등을 만나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막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도민 100만 서명운동은 지난 11월 1일부터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전라북도 시군 의회의장단협의회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협조를 얻어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AI 거점통제초소 철통방역 '총력'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고병원성 AI가 기승을 부리고 위기경보까지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에서 철통방역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주말부터 AI 거점통제초소에 정현율 익산시장을 필두로 5급 간부공무원 전원이 상황중요시 까지 주말근무에 투입하여 차단 방역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익산시 AI 거점통제초소는 하루에 공무원 2, 민간인 8명으로 2개소를 구성하여 청정익산을 사수하기 위해 24시간 연일 철통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현율 시장은 "이번 주부터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5급 간부공무원 전

원이 AI 상황중요 시까지 주말 내내 방역에 힘쓰는 것"이라며 "청정 익산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 농협양곡(주) 익산통합RPC(지사장 김구호)은 익산시 가금농가들을 위해 연일 철통방역에 매진하고 있는 AI 거점통제초소를 방문하여 100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원했다.

농협양곡(주) 익산통합 RPC 지사장은 "불철주야 AI 거점통제초소를 운영해 방역에 힘쓰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수협 해망동 면세유 공급시설 내달 가동

안전성 논란을 빚어왔던 군산시수협 해망동 면세유 공급시설이 빠르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본보 8월 17일자 8면>

군산수협은 해망동 1011-13번지 일원에 설치된 면세유 공급시설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다음달부터 운영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시설은 총 13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업용 면세유 저장탱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후 군산시와 군산수협은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피해대책 협의를 벌인 결과 주민 복지를 위한 경로당 신축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면세유 공급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항은 물론 개야도 등 도서 근해어민들과 연안복합 등 약 500여 척의 어선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수협은 군산시와 군산소방서로부터 위험물 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군산=문정곤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featuring a child and text: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Gunsan, a premium city with a wind direction meter, is a heart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y).